

#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1-10】

2011. 10. 10.

## 리비아 민주화 혁명 과정과 전망

### 목 차

I. 리비아 민주화 혁명 과정 .....	1
II. 전망 .....	5



■ 2011년 2월 중순에 발생한 리비아의 반정부 시위는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으로 변모하였고, 이후에 NATO의 군사적 개입에 따라 국제전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인명 피해와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였음. 2011년 8월 중순에 반군이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하여 카다피 정권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향후 새로운 정부의 수립과 국가의 재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이하에서는 리비아의 민주화 혁명 과정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함.

## I. 리비아 민주화 혁명 과정

### 1. 발생 배경

#### □ 튀니지, 이집트 등 주변국의 민주화 시위 성공

- 튀니지에서는 2010년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정부의 강경 진압과 유화전략(일자리 창출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 약속)에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확대되었음. 결국 23년간 집권하였던 벤 알리 대통령이 2011년 1월 14일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함에 따라 정권이 붕괴됨.
- 튀니지의 시위는 치솟는 물가와 실업률 등으로 경제난을 겪던 이집트로 파급되어 2011년 1월 25일에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으며, 무바라크 대통령이 2월 11일에 사임을 발표함에 따라 30년 간의 장기 집권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었음.
- 민주화 바람이 리비아에도 상륙하면서 40년 넘게 집권 중인 카다피 국가지도자의 퇴진과 생활수준 향상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2011년 2월에 발생하였음.

#### □ 카다피 정권의 장기집권과 부정축재

- 카다피는 27세이던 1969년에 쿠데타를 통해 세누시(Senoussi)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이후 2011년 8월에 정권이 붕괴되기까지 무려 42년 간 집권해 왔음.



- 카다피는 대통령직에 오르지 않고 군 대령을 정식 직책으로 사용하였음. 그러나 혁명의 지도자이자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사실상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하는 1인 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의회나 정당제도를 허용하지 않았음.
- 또한 혁명의 핵심동지였던 잘루드(Abdessalam Jalloud) 전 총리를 숙청하는 등 정권 유지를 위해 반대세력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차남인 사이프 알-이슬람(Saif al-Islam)을 후계자로 한 권력 세습체제를 구상하여 왔음.
- 카다피 일가는 약 1,5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재산을 부정으로 축적하여 호화 주택, 황금 소파, 호화 전용기 등을 소유하며 사치스런 생활을 영위해 왔음.

#### □ 극심한 빈부 격차와 높은 실업률 등 생활수준 악화

- 리비아는 2010년 말 기준 원유 매장량이 464억 배럴(세계 점유율 3.4%)로 아프리카 제1위의 원유 보유국이자 일 166만 배럴을 생산하는 산유국으로 1인당 GDP가 12,000달러를 상회하는 중소득국임.
- 그러나 풍부한 천연자원에 따른 혜택이 일부 지배계층에만 집중되어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음. 총 인구의 30% 이상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고 실업률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2. 진행경과

#### □ 정부의 강경진압 등으로 시위가 내전으로 변모

- 2011년 2월 15일에 벵가지(Benghazi)에서 카다피의 퇴진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음. 정부는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시위를 무력으로 강경진압 하였고, 무차별적 학살로 이어져 수천여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 벵가지는 리비아 제2의 도시이자 예전 세누시 왕조의 수도였으며, 전통적으로 카다피 통치에 적대적인 성향을 보였음.
- 시위 초반부터 정부가 시위대에 강경히 대응하고 부족 간 갈등이 더해지면서 반정부 시위는 친정부 세력과 반군이 대립하는 내전 양상으로 변모되었음.



- 리비아에는 500여 개 부족이 있는데, 카다파(Qadhafha)\* 부족 출신의 카다피는 주요 부족 간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철권통치를 지속하여 왔음.

\* 카다파 부족은 시르테(Sirte)와 세브하(Sebha)를 거점으로 하고 있으며, 카다피 정권 하에서 요직을 차지하였음.

- 그러나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리비아 최대 부족으로 총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와르팔라 (Warfalla) 부족, 3대 부족의 하나인 주와야(Zuwayya) 부족 등이 독재와 부정부패에 반발하여 카다피의 퇴진을 요구하며 반정부 진영을 구성하였음.

#### □ UN의 군사 개입 승인 결의와 NATO의 공습 개시로 국제전으로 확대

○ 정부의 무자비한 시위 진압이 이어지자 UN의 군사 개입 승인, NATO의 공습 등 국제 사회가 리비아 사태에 적극 개입하면서 내전은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음.

- 2011년 3월 17일에 UN 안보리는 리비아 내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됨.

- 3월 19일에는 프랑스, 영국 등을 중심으로 NATO군의 리비아 공습이 개시되어 정부군의 반격으로 어려움을 겪던 반군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였음.

○ 반정부 세력은 2011년 3월 5일 벵가지에 시위대의 대표기구로서 국가과도위원회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NTC)를 설립하였으며, 잘릴(Moustapha Abdel-Jalil) 위원장은 NTC가 리비아를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임을 선언함.

- 잘릴 NTC 위원장은 법무장관 출신으로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하자 각료 중에서 가장 먼저 사임한 후 반정부 세력에 가담하였음.

- 프랑스가 2011년 3월 10일에 최초로 NTC를 인정한 후 서방,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잇따라 NTC를 리비아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기구로 인정하였음.

- NTC 인정을 보류해 왔던 러시아와 중국은 내전이 사실상 반군의 승리로 끝나자 2011년 9월 1일과 12일에, 아프리카연합(AU)과 남아공은 9월 20일에 NTC를 인정하였음.



<표 1> 리비아 민주화 혁명의 주요 진행경과

일 자	주 요 내 용
·'11.02.15	제2도시 벵가지에서 반정부 시위 발생
·'11.02.17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로 수십 명의 사상자 발생
·'11.02.21	정부의 유혈진압에 대한 항의로 전 세계 리비아 대사 등 사임
·'11.02.26	UN 안보리, 카다피 국가지도자 등에 대한 여행금지 및 해외자산 동결
·'11.03.01	반군, 수도 트리폴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장악
·'11.03.05	반군, 벵가지에서 NTC를 발족하고 리비아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임을 선언
·'11.03.10	프랑스 정부, NTC를 리비아의 유일한 합법적인 기구로 공식 인정
·'11.03.16	카다피 친위부대, 반군 근거지인 벵가지 인근까지 진격
·'11.03.17	UN 안보리, 군사적 개입을 결의하고 리비아 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
·'11.03.19	다국적군, 리비아 공습 개시
·'11.04.10	AU, 리비아 분쟁 중단 촉구
·'11.06.27	국제형사재판소(ICC), 카다피 국가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11.07.28	유니스 반군 총사령관, 내부 반대파에 의해 피살
·'11.08.11 ~14	반군, 브레가(Brega) 및 아자위야 등 탈환
·'11.08.21	반군, 트리폴리의 대부분 지역 장악
·'11.08.23	반군, 대통령궁 함락과 내전 승리 선언
·'11.09.12	중국, NTC를 리비아 대표기구로 인정
·'11.09.20	AU 및 남아공, NTC 인정

#### □ 반군의 트리폴리 장악과 내전 승리 선언

- 친정부 세력은 내부 이탈이 가속화된 반면, 반군은 NATO의 지원으로 점차 체계화되면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음.
- 2011년 8월 21일에 트리폴리에 입성한 반군은 8월 23일에 정부 진영의 핵심 거점인 대통령궁(Bab al-Aziziya compound)을 함락하고 6개월 간 지속된 내전 승리를 선언함.



## □ 친정부 잔당 세력에 대한 공격 강화와 카다피 국가지도자 추적

- 반군은 트리폴리 함락 후 카다피 친위세력이 저항하고 있는 시르테, 바니 왈리드(Bani Walid), 세브하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여 왔음.
- 반군은 이들 지역의 정부군에게 2차례의 항복 시한(9월 3일, 9월 10일)을 제시 하였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자 전면 공격을 감행하였음.
- 반군은 행방이 묘연한 카다피를 계속 추적하고 있음. 카다피가 이미 해외로 망명했다는 설도 있으나, 아직 리비아 내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카다피 가족과 측근 중 일부는 주변국인 알제리, 니제르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짐.
- 2011년 8월 29일에 카다피의 아내와 세 자녀(Aisha, Mohammed, Hannibal)가 알제리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알제리 정부는 카다피의 망명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 2011년 9월 6일에 다오(Mansour Daw) 보안사령관 등 일부 정부군이 니제르에 입국하였고, 9월 12일에는 카다피의 셋째 아들인 사디(Saadi al-Gaddafi)가 입국한 것으로 알려짐.

## II. 전망

### 1. 정치·사회 안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 □ 반군 내 다양한 세력 간의 분열 가능성 상존

- 2011년 3월 뱅가지에서 출범한 NTC는 미국, 프랑스 등 서방국들과 UN,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리비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인정받고 있음.
- 그러나 내전 과정에서 단결했던 반군 내의 다양한 세력들이 카다피 정권의 붕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협력관계를 유지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며, 잠재되어 있던 이념의 차이와 부족·지역 간 이해관계에 따른 경쟁, 전공(戰功)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면서 분열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실제로 일부 반군 그룹은 NTC와는 별도로 자신들의 과도정부 구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2011년 7월 28일에 유니스(Abdel-Fattah Younis) 반군 총사령관이 내부세력에 의해 암살당한 것은 반군의 분열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 □ 잔존 카다피 친위세력의 제압과 내전 중 지급된 무기의 회수 문제

- 반군이 2011년 8월에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하면서 승리를 선언했지만, 카다피 친위세력은 카다피의 고향인 시르테와 트리폴리 남부에 위치한 바니 왈리드를 중심으로 무장 저항을 지속하고 있음.
- 반군이 이들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다면 게릴라식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여 치안 회복과 국가 재건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매우 큼.
- NTC는 카다피 친위세력을 완전히 진압할 때까지는 임시 정부 수립을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음.
- 또한 내전 중에 정부군, 정부가 고용한 용병 및 반군에게 무차별적으로 지급된 무기를 조속히 회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내전 종료 후에 치안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 중의 하나임.

#### □ 또 다른 내전의 발생 가능성

- 최악의 경우, 이라크와 같이 종전 후에 정파 및 부족 간 극심한 갈등으로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라크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 소수였던 수니파 정권이 붕괴되고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 정권이 수립되었으나, 수니파와 시아파 갈등이 내전으로 확대되면서 2007년에 극심한 혼란을 겪은 바 있으며, 아직 까지도 정치·사회적인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리비아는 인구의 대부분이 수니파이므로, 이라크와 같이 종파 간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반군의 주축 세력인 와르팔라 부족이 카다피 정권에 협조했던 카다파 부족에 보복을 가할 경우 부족 간 내전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 국가과도위원회의 정부수립 로드맵

- 총선 전까지 국가과도위원회 통치체제 유지
- 1개월 이내에 수도 트리폴리에 임시 정부 수립
- 3개월 이내에 총선 실시를 위한 선거법 제정
- 8개월 이내에 200명을 선출하는 총선을 실시 (총선 후 국가과도위원회 해체)
- 국가과도위원회 해체 후 1개월 이내에 의회는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국무총리는 각료 임명
- 의회는 새로운 헌법안을 작성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마련한 헌법안에 대해 의회 승인 후 국민투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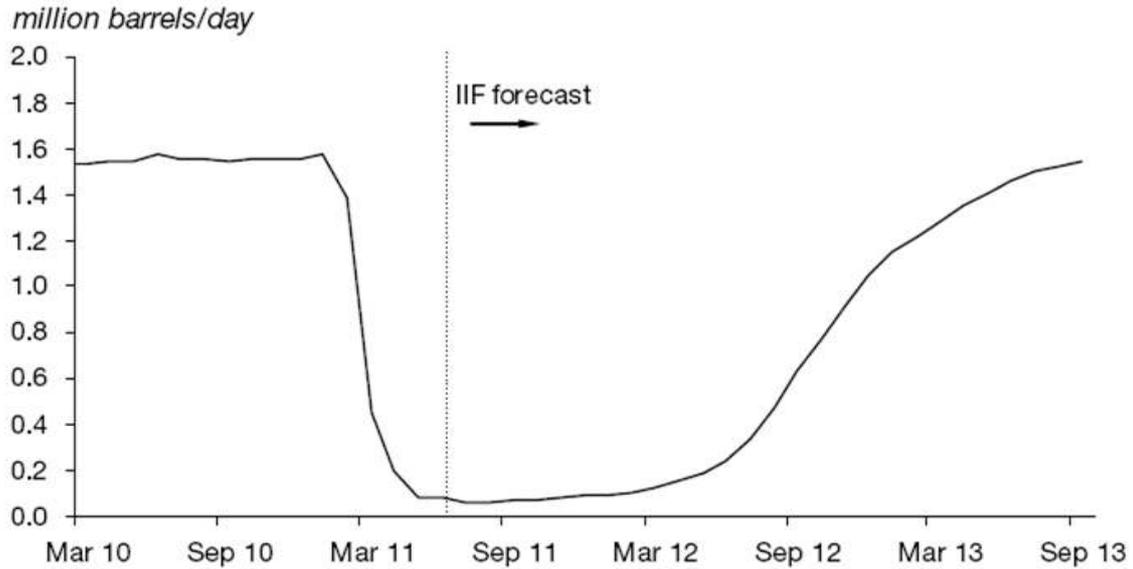
## 2. 석유산업 회복 여부가 경제 재건의 관건

### □ 혁명 이전 수준의 원유 생산량을 회복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릴 전망

- 리비아는 GDP의 69%, 재정수입의 90%, 총 수출의 98%를 차지하는 석유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석유산업의 회복이 필수적인 선결과제임.
- 리비아의 산유량은 민주화 혁명 이전에 166만 b/d이었으나 내전으로 원유 생산이 크게 타격을 입어 현재는 5만~10만 b/d로 급격히 감소하였음.
- OPEC은 2011년 7월 리비아의 산유량을 53,000 b/d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음.
- 리비아의 산유량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는 시점은 최소한 24개월 후인 2013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산유량은 2012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3년에 회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 EIU와 IEA 등 일부 기관들은 2015년이 되어야 이전 수준의 원유 생산량을 회복할 것이라고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1> 리비아 원유 생산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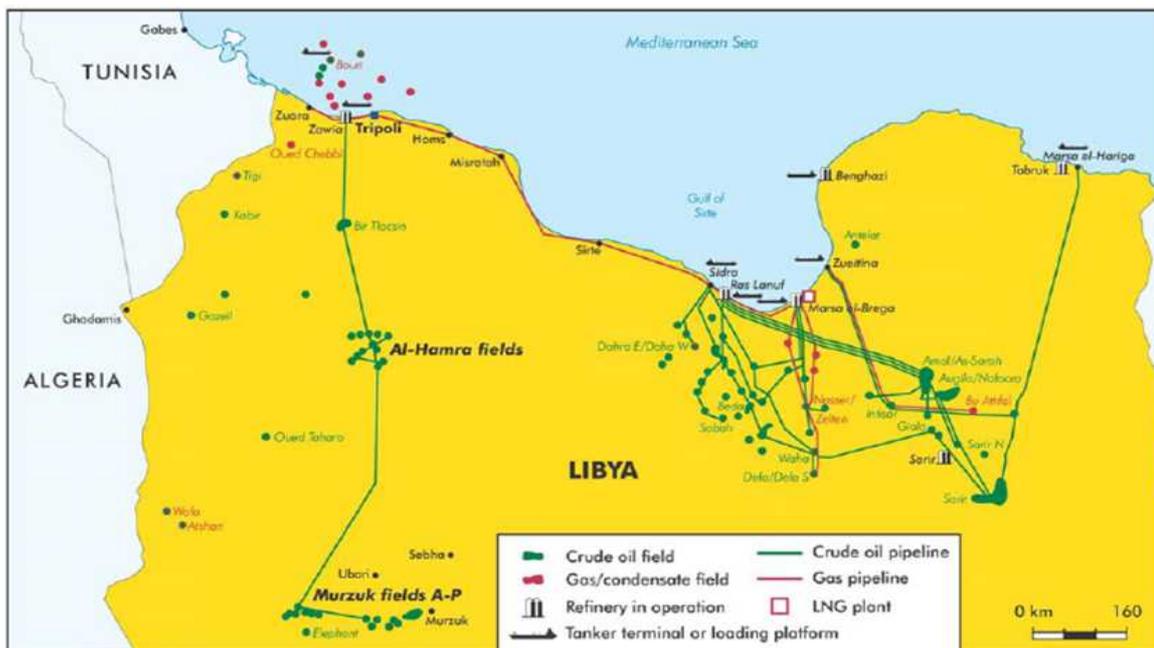
자료: IIF.

- NTC는 원유 생산시설의 90%가 내전의 피해를 입지 않아 산유량이 3~6개월 내에 50만 b/d, 15개월 이내에 이전 수준인 166만 b/d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임.
- 1979년 이란 혁명, 1991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 전쟁 등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분쟁 이전 수준으로 원유 생산량이 회복하기까지 수년이 소요되었음.
- 리비아의 원유 생산은 이탈리아 Eni 등의 해외 석유회사들과 튀니지, 이집트 등의 해외 노동자들에게 크게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이들의 복귀 없이는 원활한 원유 생산이 불가능함. 이들은 리비아 치안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석유산업의 조속한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또한 리비아에는 시르테 지역 유전 등 오래된 유전이 많아 수개월간 방치되었던 유전에서 신속하게 원유 생산을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정상적으로 원유를 생산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

리비아의 원유 및 천연가스 인프라 현황



자료: IEA.

### □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지원 예상

- 2011년 9월 1일 프랑스 파리에서 리비아의 재건과 민주 정부 수립을 논의하는 회의(Friends of Libya Conference)가 60여 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 참가국들은 카다피 정권에 내려진 무기 금수,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를 속히 철회하고 150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자산의 동결을 해제하기로 결의하였음.
  - 영국 정부는 2011년 8월 31일에 자국 내 리비아 자산 중 8억 3,000만 달러, 9월 7일에는 2억 3,000만 달러에 대한 동결조치를 해제하였음.
- UN, IMF 등 국제기구도 리비아의 재건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UN은 2011년 8월 25일에 미국이 동결한 해외자산 15억 달러에 대한 해제 요청을 승인하였고, 9월 16일에 대 리비아 제재를 해제하고 카다피 정부를 대신해 반군 대표기구 NTC에 회원국 지위를 부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 또한 리비아의 신정부 수립과 재건을 돕기 위한 '리비아 지원 유엔 사절단 (UNSMIL)'의 파견을 승인함.



- IMF도 2011년 9월 11일 성명을 통해 NTC를 리비아 정부로 인정하고 조속한 경제회복과 사회 혼란의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 □ 막대한 국부가 경제 재건의 원천이 될 전망

- 리비아는 고유가에 힘입어 막대한 국부를 축적함으로써 1,540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 1,040억 달러와 리비아 투자청(Libyan Investment Authority)이 운용하는 국부펀드 500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 중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자산이 UN과 서방국가 등에 의해 동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동결조치가 해제된다면 해외자산은 인프라 구축 등 경제재건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됨.

### 3. 리비아 재건시장 전망

#### □ 재건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 치열

- NTC가 향후 10년 동안의 재건사업 규모를 수천 억 달러로 예상하는 가운데 각국은 리비아 재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됨.
- KOTRA는 재건사업 규모를 정유, 전력, 항만, 도로, 주택 등 분야를 중심으로 1,200억 달러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
- 이에 그간 NTC의 대표성과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러시아와 중국도 뒤늦게 NTC를 인정하고 리비아 재건시장 참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리비아 재건시장에서는 반군을 적극 지원하였던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 서방국들과 아랍 국가 중 카타르가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전망이다.
- 2011년 9월 15일 프랑스와 영국 정상의 리비아 방문시에 잘릴 NTC 위원장이 리비아가 향후에 체결할 계약에서 동맹국들이 우선권을 가질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내전 초기부터 반군을 지원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 서방 기업들이 원유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됨.



- 아랍 국가 중에서는 반군에 경제·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카타르가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액화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음.
- 주변국인 이집트와 튀니지, NTC를 적극 지원했던 터키도 리비아 재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반군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은 상대적으로 재건시장 참여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임.

#### □ 한국이 국가 재건사업의 주요 수혜국이 될 가능성 높아

- 카다피 정권 시절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된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신정부 수립 후에도 발전소, 주택, 도로 등 분야에서 다수의 사업을 수주하면서 리비아 재건사업의 주요 수혜국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대수로 공사 등 다수의 사업을 수주하여 2011년 7월 말 기준으로 리비아 수주누계액이 36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리비아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공사 수주국 중 제3위 국가임.
- 수주액은 2007년에 리비아 진출 이후 최대 규모인 55억 달러에 달하였고, 이후에도 2008년 16억 달러, 2009년 31억 달러, 2010년 2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KOTRA는 과거 발주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 비중을 고려할 때 총 재건시장 규모 1,200억 달러 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1/3에 해당하는 4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한바 있음.

작성: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책임조사역 박대원 (3779-5723)  
parkdw@koreaexim.go.kr